

1. 들어가며 -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전에 나와있는 사랑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이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다.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부분과 그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랑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꼭 연인간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인간이라면, 아니, 사실 동물이든 사물이든지 상관 없다. 우정도 사랑의 한 종류일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 사랑일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방대하다. 그러나, 난 사랑의 오답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이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때린다면, 이는 애정 표현이 아니라 폭력이다. 또 과도한 집착을 보이거나 연인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며 이를 사랑이라 여긴다면, 이는 사랑의 오답일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유혹을 주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친다면 더 큰 사랑을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돈 끼호떼>에 나오는 안셀모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유혹을 뿌리치길 원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 받고 싶어 했다. 따라서 난 이러한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 단순한 호기심의 씨앗

안셀모는 아내의 정조를 확인하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이 있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 까밀로에게 유혹이 온다면 그녀는 나에 대한 정조를 지킬까? 라는 호기심으로 이 비극은 시작되었다.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 로따리오에게 부탁을 한다. 로따리오는 까밀로만큼이나 안셀모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다. 이 둘이 떨어진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정도로 말이다. 안셀모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한다. 로따리오 또한 친구 안셀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한다.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안셀모는 우정을 들먹이며 로따리오가 부탁을 수락할 때까지 요청한다. 마지못해 부탁을 받은 로따리오는 처음에는 하는 시늉만 한다. 우리는 안셀모의 이 호기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호기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까밀로의 사랑을 확인 받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한다. 책임을 온전히 로따리오와 까밀로에게 넘기고, 자신은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전환한다.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고 출장을 가기까지도 한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 무례하기까지 하다. 아내에게는 말도 없이 테스트를 하며 혼란을 주었고, 친구에게는 굉장한 죄책감을 부여했다. 심지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호기심을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성공을 한다면 아내의 정조는 확인하겠지만 로따리오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실패를 한다면 친구와 아내 모두를 잃을 것이다. 단순히 호기심을 해결한다는 것에 비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일이었다. 이렇게 비극의 씨앗은 심어진다.

3. 욕망이라는 양분

로따리오의 까밀라를 유혹하는 척만 한다. 거짓으로 잘 유혹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몰려온다. 당연하게도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되지만,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아내를 유혹해야하는 것이다. 금지된 일을 하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는 당연하게 적용된다. 단적인 예를 들면, 시험 기간, 마감 기간이 있을 때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 너무나도 즐겁다. 평소에 갖지 못하는 도파민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제한된 상황일수록 이를 어길 때 얻는 즐거움이 크고, 이를 어기고 자하는 욕망은 커진다. 로따리오도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까밀라도 처음에는 로따리오가 불편했다. 남편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안셀모는 로따리오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편지를 받고 만족했다. 작전대로 되어간다고 기뻐하기까지 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었다. 안셀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욕망에 굴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잘해주던 로따리오는 감정의 혼란을 겪으며 진정으로 까밀라를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잘해주게 된다. 안셀모를 기다리던 까밀라는 잘해주는 로따리오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고, 안셀모와 다른 사랑을 주는, 다른 매력이 있는 로따리오에게 점점 빠진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살펴보자.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모두 모방 욕망이며 욕망의 대상은 언제나 제 3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난 로따리오가 까밀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게된 계기가 이 욕망의 삼각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안셀모의 부탁을 받지 않고, 단 둘이 남겨졌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셀모의 부탁을 받으며 그는 안셀모가 까밀라를 사랑하는 것을 모방했을 것이다. 대상과 주체 사이에 중개자가 있는 모습이 욕망의 삼각형을 완벽하게 구성한다.

4. 꽃 피운 비극

“며칠 뒤에 집에 돌아온 안셀모는 집에서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신경을 쓰지는 않았으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었다.” 당연하게 까밀라가 정조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한 판단을 한 안셀모에게 돌아온 것은 비극이었다. 처음에는 로따리오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윽고 온 도시에 소문이 퍼지며 진실을 깨닫는다. 결국 안셀모는 이 사실에 절망하며 유언장에 아내를 용서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로따리오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었고, 까밀라는 자신이 사랑한 두 명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우울증으로 죽는다. 난 안셀모의 유언장에 집중했다. 안셀모는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예정된 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호기심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친구와 아내를 두고 떠나도 아내가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5. 결론

안셀모의 호기심으로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한다. 사랑에 대한 의심과 확인 받고 싶어하

는 욕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난 안셀모의 사랑은 오답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봐도, 과정으로 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의문도 들었다. 안셀모는 정숙한 남편이었는가? 까밀라를 실험할 만큼의 정조를 지키는 남편이었을까?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안셀모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잘못된 욕망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안셀모도 호기심이라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의 씨앗을 심었고, 로따리오는 안셀모의 욕망을 모방하며 욕망이 생기고, 이 씨앗에게 물을 주었다. 더불어 까밀라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커지며 성장을 도왔다. 이 세 사람의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 비극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랑 보다는 에리히 프롬의 말 처럼 주체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